새로운 시작 앞에 서서

"사람들은 간혹 내 외형을 보고 말하기도 한다. 멀쩡하니 무엇이든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그러한 말들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또 슬프게 하는 것인지 겪어 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 없을 것이다."

휴……

긴 한숨과 함께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작은 상념의 알갱이들이 하나 둘 떠올라 온 몸을 나른하게 하고 깊이 기대어 앉은 피곤한 몸은 더 깊이 깊이 생각의 바다 속으로 빠져 들어간다.

오 남매 중 막내로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자랐던 나의 어린 시절, 혈압으로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차례로 세상을 떠나시고 위의 누님들의 보살핌 속에서 자라왔던 나, 젊어서 벌려 놓았던 삶의 수단들이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아픈 이별, 그것은 내 젊음에 방황이라는 삶을 공간을 만들었고 그 방황 속에서 보내버린 삶의 아쉬웠던 순간들, 그리고 서서히 찾아왔던 결핵이라는 어두움의 그림자.

마치 누군가가 정해 놓은 것 같은 수순을 밟아 가는 것처럼 나 또한 그렇게 결핵이라는 어두움에 갇혀 버렸고 이제는 나의 삶에서 결코 떼려야 뗄 수 없는 친숙하기까지 한 결핵이라는 두 단어가 오늘까지도 내 어깨를 힘들게 한다.

84년 처음 결핵을 앓게 되었지만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세상에 나와 이것저것을 하다가 내 몸은 더욱 악화되었고, 결국 순천 기독결핵 재활원에서 3년 간의 입원치료를 받은 끝에 외형상의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것이 예전처럼 새로워진 것은 아니었다. 방치하다시피 했던 치료의 소홀로 이미 폐는 여기저기 헐어 버렸고 걸핏하면 폐렴에 열이 올라 정말 치료가 다 된 것인지 아닌지를 분간할 수 없는 그런 몸의 상태가 되어 버렸다. 결국 누님 집에서의 부담스러운 휴양을 뒤로하고 만성환자들의 동산인 이곳 보양원에 들어와 삶의 안식을 찾으며 살게 되었다.

아무 것도 확실한 내일을 보장하지 못하는 생활. 오늘 멀쩡하다가도 내일이면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하는 도무지 내일을 말할 수 없는 이러한 몸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아마 대부분의 만성 환자

들이 안고 있는 두려움과 걱정이리라!

멀쩡한데 왜 일하지 않느냐고요?

사람들은 간혹 내 외형을 보고 말하기도 한다. 멀쩡하니 무엇이든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그러한 말들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또 슬프게 하는 것인지 겪어 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 없을 것이다.

우리 동산에는 조그마한 언덕에 작은 예배당이 있다. 불과 10여 미터만 오르면 되는 그러한 완만한 경사의 예배당.

그 곳을 오르기 위해 두 세 번씩 중간에 머물러 숨을 골라야만 하는 우리 식구들의 모습, 허리에 손을 얹고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가쁜 숨을 고르기 위해 씩씩대야 하는 서글픈 모습들, 그리고 가쁜 숨보다 더 서글픈 우리네 가슴을 누가 알 수 있겠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며 현실이며 우리가 지고 가야할 삶의 버거운 짐인 것을.

오래 전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혜택으로 주어지는 영세민 아파트를 신청했었다. 그 때에는 그냥 여기를 나가면 그래도 살 곳은 있어야 하는데, 하는 막연한 심정으로 신청을 했던 것인데 이번에 내 순번이 돌아와 입주를 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처음엔 그냥 '야 나도 집이 생겼다' 하는 기쁨과 설렘에 들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슴은 마냥 무거워 지기만 한다. 지금의 내 몸으로 사회에 나가서 혼자의 삶을 개척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자 말할 수 없는 중압감이 되어 나를 더욱 힘들게 한다.

"정부의 지원책은 다양하게 발표되고 이제는 사회의 어려운 이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 양 말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처럼 외형의 모습이 아닌 내부기관의 상함으로 활동을 할 수 없는 이들에 대한 지원은 어디에 있단 말인가."

내 나이 벌써 56세. 평범한 사람이라면 이루어 놓은 자기의 기반 위에서 안정적 삶을 꿈꾸고 가족과 함께 이것저것 여가를 즐기며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정으로 하나된 사랑스런 아내와 나날이 자기들의 삶을 이루어 가는 자식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기쁨이 가장 원숙해야할 그런 나이건만 지금의 나에겐 사랑스런 아내나 자식은 고사하고, 두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빈 털털이의 모습, 거기에 몸은 솜방망이처럼 언제고 부서지기 쉬운 가슴속 상처만을 가득 안고 혼자만의 삶으로 덩그러니 세상에 던져져야 한다는 사실이 나를 더욱 두렵고 슬프게 한다.

떠나는 것이 오히려 두려운 현실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것이 답이다, 하고 말할 수 없는 막막함만이 내 가슴을 답답하게 한다.

차라리 그냥 이대로 보양원에서 적당하게 살았으면 하는 생각 아닌 생각까지 들어 쓴웃음을 짓게 한다.

여기저기 먼저 나가 생활하는 사람들을 찾아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이것저것 정보를 얻어 보지만 가장 힘든 것은 내 건강을 내 스스로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누구보다 나 스스로가 가장 잘 아는 현실이기에 이러할 때 누군가가 조그마한 힘이라도 되어줄 수 있다면, 아니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터전이라도 있다면 이렇게 심하게 삶에 대한 걱정으로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으련만….

아마 이 문제가 만성 결핵환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나뿐 아니라 누구나 오랜 치료의 결과로 몸의 활동성을 잃어 버렸다면 이렇게 홀로 살아 가야할 생존의 문제 앞에서 과연 어떻게 무엇을 결정할 수 있겠는가?

정부의 지원책은 다양하게 발표되고 이제는 사회의 어려운 이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 양 말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처럼 외형의 모습이 아닌 내부기관의 상함으로 활동을 할 수 없는 이들에 대한 지원은 어디에 있단 말인가.

지금 생활은 기초생활보장에 의한 최저의 생계비를 지급 받아 살아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겠지만 만약 털털한 중고차라도 한 대 사서 그것으로 행상이라도 하려 한다면 바로 기초생활보장법의 제외대상이 되어버리는 현실, 생활비보단 병원을 벗어날 수 없는 우리들에겐 의료비의 부담이 더 중요한데 과연 누가 고달픈 삶을 위해 이러한 혜택을 포기하려 하겠는가?

결국 일할 수도 없고 또 해서도 안 되는 우리의 막막한 현실이 왜 이리 크게만 느껴지는 것일까? 아마 지금 내가 그 한가운데 서서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있기 때문이리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정든 동산을 떠나가야 한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내 앞날 그 시간 속에서 내 모습이 어떻게 변해갈지 내 삶이 어떻게 이루어져갈지 나는 지금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다. 하지만 이제라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 드리고 싶다.

새로운 시작 그것이 두려움일지라도 그것이 너무나 힘들어 주저앉고 싶을지라도 난 이제 그 길을 떠나고자 한다. 홀로 떠나는 이 길이지만 가다보면 때론 앉을 곳이 생기고 때론 손잡아줄 이가 생기고 때론 함께 어깨를 걸머지고 걸어 갈 이도 생기리라.

그렇게 사회의 작은 구성원이 되어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그 속에서 내 인생도 새로운 삶의 행복을 만들어 갈 수 있으리란 희망을 애써 가슴에 품어본다. 〒

'결핵환자의 나들이'는 결핵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는 공간입니다. 결핵을 앓으셨거나 현재 앓고 계신 분들의 소중한 사연 기다립니다.